

HM COMPANY™

COMPLIANCE MATURITY DIAGNOSTICS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진단에서 답을 찾다

변화하는 컴플라이언스 환경에서 조직의 준수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준법감시인과 법무팀이 실행할 수 있는 개선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HM COMPANY | Internal Audit Consulting Services

SELF-DIAGNOSTIC CHECKLIST

우리 조직의 컴플라이언스,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다음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 보십시오. 준법감시인과 법무팀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조직의 현 수준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최신 규제 변화가 사내 정책과 절차에 제때 반영되는 체계가 있다

- 준법감시인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과 보고 라인을 갖고 있다

-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이 역할별로 정기 시행된다

- 내부신고 제도가 익명성과 무보복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 준수 점검 결과와 리스크 현황이 경영진까지 정기 보고된다

-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수치화·모니터링하는 핵심 지표가 정의되어 있다

진단 결과

3개 이상 해당되지 않으면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 진단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지표와 절차의 갭을 수치로 확인하고,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WHY DIAGNOSE

왜 지금 컴플라이언스 진단이 필요한가

규제 환경이 달라지는 속도는 빨라지고, 조직 내 통제의 공백은 더 촘촘하게 드러납니다. 감(感)이 아닌 구조화된 진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01

규제 환경의 가속화

금융·개인정보·ESG 공시 등 적용 규제의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개정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02

제재 리스크의 확대

과징금과 행정제재에 이어 평판 리스크까지 동반되며, 한 번의 사고가 조직 전체의 신뢰를 흔듭니다.

03

통제의 사각지대

조직·사업 확장으로 관리 공백이 생기고, 부서 간 책임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지점이 늘어납니다.

04

지표 기반 관리의 전환

체감형 대응에서 수치·지표 기반 준수 관리로 전환해야 경영진과 이사회에 설명 가능한 근거가 생깁니다.

"컴플라이언스는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일입니다."

— HM COMPANY Audit & Consulting

CURRENT LANDSCAPE

규제의 범위는 넓어지고, 감독은 촘촘해지고 있다

한 해에도 수많은 법령과 감독규정이 신설·개정되고, 감독당국의 **현장검사와 조사 권한**은 더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과 법무팀의 업무 부담은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중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중대재해처벌법, ESG 공시 의무 등 최근 몇 년 사이 제정·강화된 규제만 해도 준법감시 영역 전반을 다시 그려야 할 정도입니다. 하나의 규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규제의 맵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감독당국의 조사 역시 과거의 문서 중심에서 데이터·로그·시스템 검증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임직원 교육 이수율, 내부신고 처리 내역, 준수 점검 이력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감'으로 움직이는 조직은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내기 어렵습니다.

"규제는 늘어나지만, 대응은 늘 늦습니다. 진단은 그 간극을 객관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준법감시 실무 인터뷰

수치 중심의 통계가 없어도, 규제 변화의 속도와 감독의 심화는 이미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체감을 조직 공동의 언어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ON-SITE DIAGNOSIS

준법 점검의 실제 현장

컴플라이언스 진단은 문서 검토로 시작해 사람의 언어로 완성됩니다. 규정과 절차는 존재하지만, 실제 운영되는 모습은 조직마다 다릅니다.

진단팀은 준법감시 부서뿐 아니라 영업·운영·IT 등 현업 부서의 관리자와 담당자를 함께 만나 정책의 의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설계와 실행의 간극'이야말로 진단이 찾아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KEY ASSESSMENT AREAS

여섯 가지 핵심 진단 영역

HM COMPANY는 컴플라이언스를 6개 축으로 구조화하여 진단합니다. 개별 점검이 아니라, 영역 간 연결을 함께 봅니다.

<p>01</p> <p>규제 매핑</p> <p>적용 법령과 감독규정을 체계적으로 매핑하고, 변화를 추적하는 체계</p>	<p>02</p> <p>정책·규정 체계</p> <p>내부 규정의 최신성, 일관성, 부서 간 상충 여부를 통합 점검</p>	<p>03</p> <p>교육·인식 수준</p> <p>임직원 역할별 교육 주기와 이해도, 실제 행동 변화 측정</p>
<p>04</p> <p>통제·모니터링</p> <p>준수 점검 절차, 리스크 지표, 보고 체계의 실효성 진단</p>	<p>05</p> <p>신고·대응 체계</p> <p>내부신고 운영, 사고 접수·조사·재발방지 프로세스 점검</p>	<p>06</p> <p>거버넌스·책임</p> <p>준법감시조직의 권한, 독립성, 이사회 보고 구조 평가</p>

여섯 영역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교육이 약하면 통제가 공회전하고, 거버넌스가 흔들리면 신고가 침묵합니다. 진단은 이 연결을 함께 보는 일입니다.

MATURITY MATRIX

성숙도 매트릭스와 As-Is/To-Be 벤치마크

현 수준을 **객관화하는 순간** 개선은 시작됩니다. HM COMPANY의 자체 진단 프레임워크는 6개 영역을 5단계 성숙도로 평가합니다.

영역별 권장 성숙도 목표 수준 (HM COMPANY 진단 프레임워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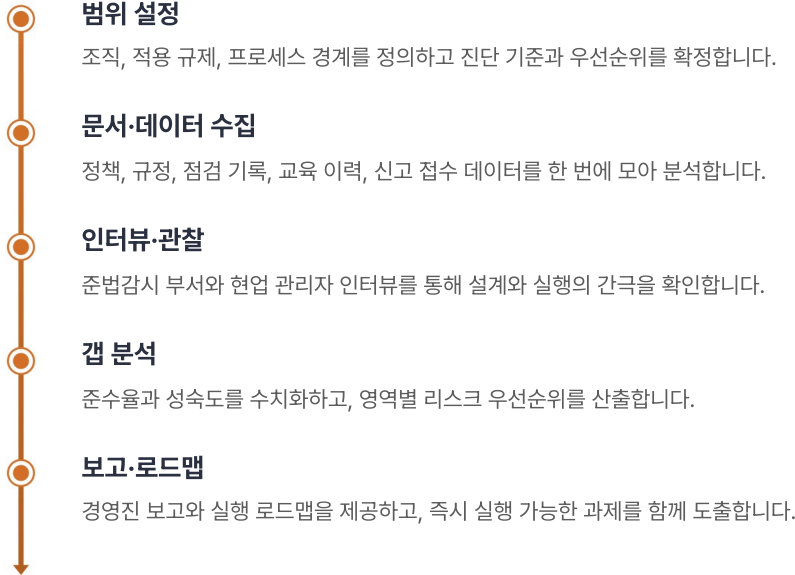


영역	AS-IS	TO-BE
규제 대응	이벤트 기반 사후 대응	상시 매핑 · 변화 모니터링
점검 방식	연간 정기 점검 위주	리스크 기반 상시 점검
보고 체계	문서 중심 경영진 보고	지표 대시보드 실시간 공유
조직 문화	규정 암기 · 형식적 교육	행동 기반 학습 · 사례 공유

DIAGNOSTIC PROCESS

현황 진단 수행 프로세스

HM COMPANY의 컴플라이언스 진단은 다섯 단계로 수행되며, 각 단계는 명확한 산출물과 고객 확인 포인트를 갖습니다.



단계	주요 활동	산출물
범위 설정	규제·조직·프로세스 경계	진단 계획서
문서 수집	정책·기록·데이터 확보	문서 현황표
인터뷰	현업·준법 부서 청취	인터뷰 요약서
갭 분석	성숙도 점수·우선순위	갭 분석 보고서
개선 로드맵	과제 정의·일정	실행 로드맵



IMPROVEMENT IN PRACTICE

데이터로 설계하는 개선의 실제

진단 결과는 보고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과 법무팀이 내일부터 실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HM COMPANY는 경영진 대상 요약본, 실무용 체크리스트, 현업 부서용 설명자료를 함께 제공합니다.

갭이 가장 큰 영역부터 '퀵윈'과 '구조 개선'으로 나누어 제시하며, 각 과제마다 책임 부서와 소요 기간, 기대 개선 폭을 함께 정리합니다. 개선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기에, 실행이 멈추지 않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서만이 아니라 지표와 운영 리듬을 함께 설계하여, 진단 이후에도 조직 스스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남깁니다.

PREVENTION FRAMEWORK

4계층 컴플라이언스 예방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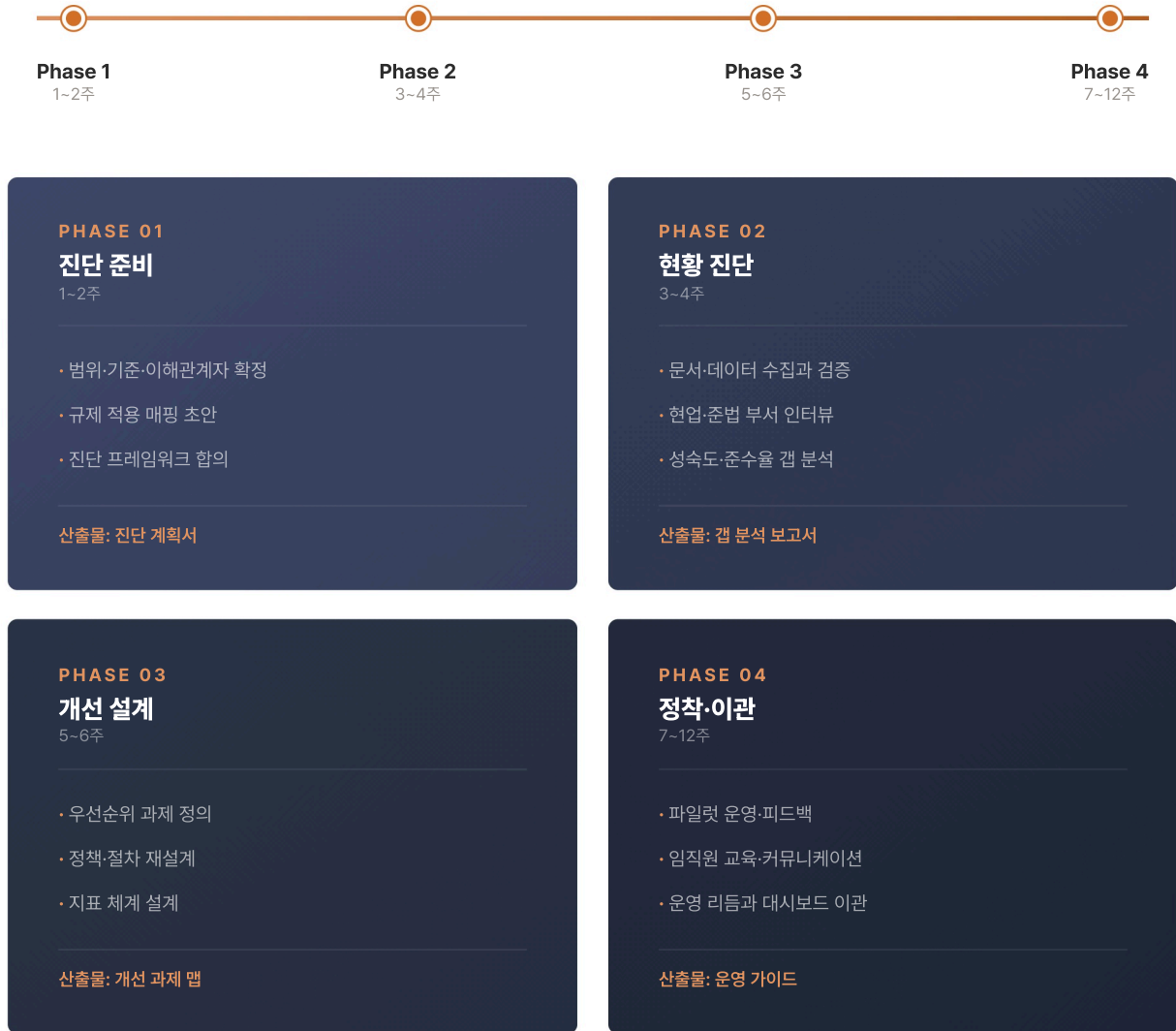
지속 가능한 준법은 전략·조직·운영·문화가 서로를 지지할 때 성립합니다. 한 계층만 강화해서는 공회전이 발생합니다.

<p>01 전략 계층</p>	<p>경영 방침과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정렬하고, 이사회 수준의 방향 설정을 명문화합니다.</p>
<p>02 조직 계층</p>	<p>독립된 준법감시조직과 현업의 1선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여 상호 견제가 작동하도록 합니다.</p>
<p>03 운영 계층</p>	<p>점검·모니터링·보고의 운영 리듬을 표준화하고, 지표로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p>
<p>04 문화 계층</p>	<p>교육과 사례 공유, 내부신고를 통해 규정을 넘어서는 준법 감수성을 조직에 심습니다.</p>

"컴플라이언스는 한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공유하는 운영 체계입니다. 4계층은 따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METHODOLOGY ROADMAP

진단 · 개선 4단계 방법론



BENCHMARK INSIGHTS

선진 준법관리 조직이 공유하는 네 가지 패턴

글로벌 선진 조직의 준법관리에는 공통된 **운영 원칙**이 있습니다. 규모와 업종이 달라도 되풀이되는 패턴입니다.

01

리스크 기반 접근

모든 영역에 동일한 자원을 쓰지 않고, 리스크 점수 기반으로 감시 밀도를 차등화합니다.

02

데이터 드리븐 감독

지표 대시보드와 로그·이력 데이터를 통해 준법 상태를 실시간에 가깝게 모니터링합니다.

03

1·2선 통합 책임

현업(1선)과 준법감시(2선)의 책임 경계를 명확히 하되, 공동 지표로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04

학습형 조직 문화

사건과 사고를 처벌이 아닌 학습 자산으로 전환하여,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합니다.

CONTINUOUS IMPROVEMENT

진단은 끝이 아닌 출발점입니다

보고서가 제출되는 순간, 조직의 실질적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진단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운영 리듬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HM COMPANY는 진단 이후에도 준법감시인과 법무팀이 자체적으로 수준을 유지·개선할 수 있도록 지표 체계, 점검 템플릿,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함께 남깁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컴플라이언스는 외부 점검이 아니라, 현업이 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는 조직 내부의 언어에서 만들어집니다.

지속적인 협업이 준법 문화를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PECTED OUTCOMES

진단 이후 조직이 얻게 되는 것

01

객관적 현 수준

감(感)이 아닌 데이터로 정리된 성숙도 점수와 영역별 강·약점

02

우선순위 개선 로드맵

리스크 기반으로 정렬된 과제 맵과 즉시 실행 가능한 퀵윈

03

규제 변화 대응력

규제 매핑과 변화 추적 체계로 사후 대응에서 상시 대응으로 전환

04

거버넌스 강화

이사회·경영진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 지표와 설명 가능한 근거



객관성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현 수준 진단



실효성
실행 가능한 개선안과 책임 부서



지속성
조직 체질화로 이어지는 운영 리듬

지금 시작하세요

컴플라이언스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조직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HM COMPANY와 함께 객관적인 진단과 실행 로드맵의 첫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문의: 02-6237-6212 | office@hmcom.co.kr

HM COMPANY™

진단에서 실행까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의 답을 찾습니다

DIAGNOSE · DESIGN · DELIVER

TELEPHONE

02-6237-6233

AUDIT & INVESTIGATION

02-6237-6212

FAX

02-6237-6240

E-MAIL

office@hmcom.co.kr

ADDRESS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0길 36-9
와이엘타워 2층, 3층

WEBSITE

hmcom.co.kr